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제가 파견되었던 대학교는 올롱가포 수빅에 위치한 바탄반도주립대학교로 slc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 곳은 비록 시골이었지만 틈틈히 수업이 끝나고 fb나 택시를 타고 sm mall이 있는 시내나 하버포인트의 시내를 돌아 다니면서 많은 필리핀의 문화적 체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업은 크게 두가지의 종류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1:1 원어민 선생님과 하는 수업과 5명의 조원들과 한 그룹으로 모여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룹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업을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토플수업과 리딩수업 보카수업, 페이스투페이스와 mmc수업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은 이동식으로 대학교처럼 한 수업이 끝나면 다른 수업으로 이동했었고, 한국식의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프리토킹을 할 시간을 선생님께 주셔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mmc수업에서는 뮤비와 광고를 그룹프로젝트로 한가지씩 해오는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 과정도 즐겁고, 덕분에 조원들이랑 더욱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Activity	금요일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원래 시간표에 있었던 수업대신에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약간 아이스브레이크타임?식으로 각각의 slc사람들과 친해지라는 의미를 담은 액티비티였고, 두번째는 제가 가장좋아했던 요트 액티비티였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요트를 타봤고, 그 만큼 신선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세번째는 리조트 액티비티, 네번째는 마지막으로 운동회 액티비티였는데요. 운동회도 비록 땀이 많이 나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나름 의미가 있었던 추억이 된 것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전반적으로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여름이랑 조금 다른 점이 생각보다 비가 적게내렸고, 하늘을 보면 미세먼지가 문제인 한국과는 다르게 하늘이 정말 푸르고 아름다워서 감탄했습니다, 또한 밤하늘의 필리핀의 하늘에 별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전	안전은 생각보다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갱스터가 과거에 수빅쪽에 많이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지레 겁을 먹었지만, 딱히 누구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이나 짐을 두고 떠난 곳에 갔을 때 한국에 비해서는 도난률이 큰 것 같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는 조금 안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만 건물에 대한 시설은 전체적으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충격받았던게 너무 바퀴벌레나 도마뱀같은 벌레, 파충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금시간이 끝나고 흡연실에서 조용히 혼자서 흡연하는게 무슨 문제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학교식당은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메뉴도 맛있는 것이 자주 나오고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아주머니께서 맛이 있는 음식이 나오면 너무 조금 주시고 다시 급식을 받고 싶어도 제재하는 모습에서 조금 불쾌했습니다.
교통	교통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거기에서는 외국인이다 보니 콜택시나 콜fb를 부르면 덤탕이를 씌우려는 분고 많고, 그 학교가 너무 시골이다보니 뭘 사려고 편의점을 가고싶어도 걸어서 1시간이 넘고, 너무 교통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700,000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30만원	시내에서 식사 및 디저트
체험비 및 쇼핑비	40만원	주말에 여행가는 비용, 쇼핑
합계	7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전에는 너무 영어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즐겁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 해야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면 선생님과 친해지기도 힘들어서 말을 잘안하다보니 말을 잘 안해서 영어를 제대로 못배울 수 있으니 쾌활한 성격을 장착하고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샴푸나 린스나 이런거 부리부리 챙겨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옷도 많이 챙겨가지 않도록 주의하고싶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 1교시가 8시여서 대학교 수업에 비해서는 너무 타이트해서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일주일뒤에 이 생활은 익숙해졌고, 지금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다. 평소에 낯을 많이가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쓰는 성격이었는데 필리핀을 다녀온 뒤 성격이 많이 쾌활해졌다는 소리를 듣는다. 거기 나라만의 특유의 쾌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난 탓인지 모르겠다. 거기 선생님들도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낯을 많이 가리고 나만의 벽을 쳤는데 비해서 나에게 서스름 없이 다가와졌고 나는 거기에 한 번 감동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필리핀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초반을 이렇게 좋게 출발하게 해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다같이 바나나보트를 타는 사진



수빅베이에서 다같이 셀카



요트 앞에 서서 사진찍는 모습



필리핀의 색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



기숙사안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습



사랑하는 선생님과 수업중에 셀카